



생명보험 수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리스크 회피 정도, 보험료 부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이 이루어지는데 국가별로 비교하면, 경제 발전정도와 개인의 리스크 회피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임.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의 수요가 유산상속, 리스크 회피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지만, 아세안 국가의 경우에는 국민 소득, 유년부양비율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아세안 국가에 대한 생명보험업 진출과 경쟁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보험수요의 다양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생명보험의 수요에 대해 80여 편의 선행연구를 서베이한 Outreville(2013)의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수요는 경제적, 인구 통계학적, 사회 문화적 및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국민 소득, 저축, 보험 가격, 이자율, 기대 인플레이션, 사회 보장, 유산동기(가족 규모, 부양비 등), 기대수명, 교육수준, 법규제도, 종교 등이 있음
 - 한편 선진국인 경우에는 경제성장의 생명보험 산업의 확장에 대한 기여정도가 명확하지 않음
 - 정부 통제, 엄격한 진입요건 및 외국기업 진입제한 규제로 인한 경쟁부족은 보험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보험소비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생명보험 수요에 대한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아세안 국가의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생명보험수요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음(Subir Sen and S Madheswaran 2013; Hui-Shan Lee et. al. 2018)
- Outreville(2013)은 경제가 발전된 국가를 대상으로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에 기초하여

생명보험의 소비 또는 수요 요인을 분석하였음

-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교육수준과 문명화 정도가 높을수록 상대적 리스크 회피 정도(Relative Risk Aversion)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명보험의 소비와 수요 요인을 분석한 다수 연구가 있었음 (Yaari 1965; Fisher 1973; Bernheim 1991)
 - 즉 기대효용이론에 따르면 리스크 회피 정도가 큰 사람은 생명보험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는데, 양의 관계보다는 음의 관계임을 규명한 연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¹⁾
- Outreville(2013)은 상대적 리스크 회피성향의 대리변수로 교육수준을 사용하여 생명보험의 수요를 분석한 결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효용이론과 반대의 결과를 제시함
 -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리스크 회피 정도가 커서 보험 필요성의 인지도가 더 높다는 결과이며, 이로 인해 선진국가일수록 보험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임

■ Subir Sen and S Madheswaran(2013)는 아시아 국가의 생명보험 소비의 결정요인을 분석함

- 2008년 기준 1인당 GDP가 1만 달러가 넘는 국가를 제외한 중국 등 12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함
 - 종속변수(보험밀도, 보험침투도)를 설명하는 경제변수(GDP, 물가지수, 유동부채, 인플레이션, 금리), 인구통계학적 변수(총 부양비율²⁾, 유년부양비율, 노인부양비율, 성인문맹률, 기대수명, 도시화), 터미변수(이슬람 여부, 규제변화 여부, 외국인 소유가능 여부)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음
- 분석결과 국민소득, 인플레이션, 금리, 유년부양비율은 생명보험수요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외국인의 보험회사 소유가능 여부, 규제의 개선은 보험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도시화, 문맹률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소득이 일정 수준 낮은 국가의 생명보험 수요분석에는 기대효용이론(리스크 회피 정도인 교육수준: 문맹률) 적용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Lee Hui-Shan et. al.(2018)은 2015년 ASEAN 경제협력기구가 출범하면서 역내 국가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생명보험 등 금융이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명보험의 수요를 분석하였음

1) Outreville(2013), p.101

2) 15~64세 인구에 대한 0~14세 인구의 백분비를 유년부양비율(Youth Dependency Ratio), 65세 이상 인구의 백분비를 노인부양비율(Age Dependency Ratio)이며, 이들의 합이 총부양비율(Total Dependency Ratio)임

- 대상 국가는 아세안 국가 중 비교적 경제적으로 발전한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제외한 9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음
- 종속변수인 보험침투도와 경제변수(1인당 GDP, 인플레이션, 금리), 인구통계학적 변수(도시화, 유년부양비율, 기대수명, 2차 교육수준(secondary literacy)³⁾, 3차 교육수준(tertiary literacy)⁴⁾) 등 독립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함
- 이들 국가의 생명보험 수요(침투도)는 국민소득, 유년부양비율, 3차 교육 수준과 정의 관계가 있는 반면, 인플레이션, 금리, 도시화, 기대수명, 2차 교육수준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의 생명보험시장은 대부분 포화가 되어 있어 보험수요를 분석하는 의미와 시사점이 적지만 아직 경제개발도상국인 아세안 국가들의 생명보험 수요분석은 의미가 있음

- 이들 국가 중 어떠한 국가에 진출하고 진출 국가에서 어떤 경영전략을 추진할 것인가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험수요를 다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생명보험 수요는 선진국 보험시장에서의 문제점인 금리나 인플레이션, 기대수명 또는 고령화, 리스크 회피 정도(학력수준)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생명보험의 수요는 비교적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판매 전략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고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전략적 변화가 필요함

참고문헌



Bernheim, B. D.(1991), “How Strong are bequest motives? Evidence based on estimates of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and Annuit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5), pp. 899~889

Fisher, S(1973), “A Life Cycle Model of Life Insurance Purchase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1), pp. 132~152

Lee Hui-Shan et. al.(2018), “Influence of Secondary and Tertiary Literacy on Life Insurance Consumption: Case of Selected ASEAN Countries”, *Geneva Papers on Risk & Insurance-Issues & Practice*, Vol. 43, Issue 1, pp. 1~15

Outreville, J. F(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Insur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85

3) 중·고교 진학률을 의미함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대학교 진학률을 의미함

empirical papers for a review of the literature”,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Review* 16(1), pp. 71~122

_____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Risk Aversion and The Level of Education: A Survey and Implication for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Journal of Economic Surveys*, Vol. 29, No. 1, pp. 97~111

Subir Sen and S Madheswaran(2013), “Regional Determinants of life insurance consumption: evidence from selected Asian economies”, *Asian-Pacific Economic Literature*, pp. 86~104

Yaari, M.(1965), “Uncertain lifetime, Life Insurance and the theory of the consumer”, *Review of Economic Studies* 32(2), pp. 137~150